

불교의 시대 정신 담아낼 사회 각 분야 지도자 육성

총무원장 스님 '승가교육진흥 담화문' 발표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지난 22일 "지속적인 승가교육 진흥을 위한 불교진흥을 이룩하자"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승가교육진흥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친 후 "승가교육으로부터 불교진흥을 위한 비상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겠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는 외형적으로 매우 성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부실한 점도 많다"고 지적한 후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한국불교가 종교적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는 질문에도 쉽게 답할 수 없다"고 교단의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가 지금 이 시대의 역사에 부응하며 자비를 구현하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한국불교가 만들어가야 할 깨달음의 세계는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과 현대사회에서 꽃 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가교육의 현대화와 내실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총무원장 스님은 "승가교육불사는 이제 중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거스를 수 없는 한국불교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2일 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승가교육으로부터 불교진흥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며 담화문을 발표했다.

있다"면서 그동안 추진한 구체적인 승가교육진흥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승가대학 교과과정과 대외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전래의 한문교재 강독에서 한국화와 현대화의 입장으로 변화를 시도했다"면서 "내년 3월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한 '각종 승가대학원의 개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다양한 교육내용을 연찬하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구축계를 수지한 스님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8~9개 교구본사와 교육사찰을 중심으로 △선학승가대학원 △율학승가대학원 △초기불교승가대학원 △한문불전승가대학원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금년 가을부터 3개월간 구축계를

수지한 스님 1500여명이 참여한 연수교육 프로그램과 자원봉사과정은 앞으로 상설 운영된다. 지난 8월 교육자와 다양한 불교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내외 석·박사 과정의 학인스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학사업 또한 계속된다.

내년 3월에는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2년제 국제불교학교가 문을 연다. 영아전문교육기관으로 용인 화운사에 개설되는 국제불교학교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향후 한국불교 세계화에 필요한 각종 국제포교를 담당할 스님을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승가교육진흥 불사는 물론, 한국불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상을 조명하게 될 대토론회가 열린다. 총무원장 스님은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주최로 내년 1년간 월1회씩 총 12회에 걸쳐 '한국불교 흥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토론회는 우리 시대에 적합하고 필요한 불교교리와 사상, 출가, 교육, 승가교시, 포교 등의 문제와 관련한 각종 정책과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대토론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토론주제 선정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도법스님을 위원장으로 한문교재와 현대화의 입장으로 변화를 시도했다"면서 "내년 3월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승가교육진흥 불사" 추진 과정에서 중도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특히 여러 사찰과 단체, 스님, 신도들이 끊이지 않고 교육진흥기금을 출연해 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앞서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제3차 회의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전제 21명 가운데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지옥증생 모두 성불할 때까지"

2011년 1월16일까지 열린다. <관련기사 5면>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스님)은 지난 23일 지장보살 기획특별전 '살, 그후'를 개막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과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관람했다. 특별전은 오는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대만 내 반한 감정 고조 양국 불교계 해결 나서야

대만 인구 70% '불자'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태권도 실격패로 점화된 대만 내 반한(反韓)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태권도 여자 48kg급 금메달 후보였던 양수권 선수가 실격패 처리되자, 태권도의 중추국인 한국을 향한 대만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대만 국민들은 태극기를 불태우거나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펼치는 등 격렬한 반한 시위가 펼쳐지고 있으며, 삼성이나 LG 등의 전자제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불매 운동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근에는 한국 학교에 달걀을 투척하는 등 과격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대만 정부와 실격 당사자인 양수권 선수가 직접 나서 "실격이 한국 때문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반한 감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만 내 반한 감정과 관련해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갈등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대만은 전체 인구의 93% 정도가 불교(70%), 유교, 도교(이상 23%)를 믿는다. 다양한 문화와 혼합되어 불교

가 발전되어 온 나라이다. 불광산사와 자제공덕회가 교육과 자선, 의료, 문화 등을 통해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를 추구하며 대만에서 불교는 정신적인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불교계가 대만 내 반한감정 해소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대해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범안스님은 "상대와 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서 대만을 보듬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불교계가 자비사상에 입각해 너그럽고 열린 마음으로 갈등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辭令

박부영 命 전략기획실장

편집국 여태동 命 기획팀장

이성수 命 중산신행팀장

하정은 命 지방문화팀장

엄무국 命 채석봉 命 독자영입팀장

2010년 11월23일자

불교 신문사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신임 인사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10명의 신임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2일 집행부 신임 국장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호법부 상임감찰, 호법과장 등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수인계를 잘하고 업무과약을 열심히 해달라"면서

"특히 공심(公心)을 갖고 소임을 바 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장 수여식 말미에 총무원장 스님은 '부장급 인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사상에 대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익지도 않은 나무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답해, 후속 인사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총무국장 헌담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 재무부장 성원스님, 호법부장 상운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 등이 배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社告

'2011 불교신문 신춘문에 공모

- 용모기간: 2010년 11월 15일(월)~12월 15일(수)까지
- 용모대상: 불교문화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 공모분야
 - 단편소설 부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시·시조 부문(각 5편, 5편이상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동화 부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평론 부문(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작 선정
- 상금
 - 단편소설 450만원
 - 동화/평론 각 350만원
 - 시·시조 250만원
 - 당선작이 없을시 신문사 규정에 따릅니다.
- 당선작발표: 2011년 1월1일 신년특집호
-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5층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에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abc2010@ibulgyo.com
- 유의사항: 홈페이지(ibulgyo.com) 참조
- 문의: (02)730-4488(신춘문예 담당)

경

불교신문 창간50주년

축

'수불스님'의 불교신문 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www.sungjongsa.co.kr

산사에 울리는 맑고 청아한 종소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음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범종명가 성종사!!!

천년의 소리를 향한

장인의 혼을 담겠습니다.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 02-733-6141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 043-536-2581

대표 :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